

기업의 농축산업 생산 진출의 비현실성

2016. 11. 1

장상환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장,
경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목차

1. 머리말
2. 기업의 농업생산 진출 실태
3. 기업농 도입의 비현실성
4. 대기업 농업 진출 규제방안

1. 머리말

- LGCNS: 새만금 산업단지에 3800억원을 투자하는 50ha 규모의 스마트 바이오 파크 조성계획 발표
- 농민단체 반발로 LGCNS는 계획 철회, 그러나 재추진 가능성 있음
- 상주시가 300억원이 투자되는 10ha 규모의 유리온실 건립 MOU 체결, 경북도에 보조금 신청, 농민단체 반발.

가족농 vs 기업농

- 가족농(family farm) : 경영주와 관련자들이 농장 자산의 50% 이상 소유, 통제
가족소유기업(family owned business) 내지
기업가적 가족농(farm family entrepreneurs)
도 가족농의 일종
- 비가족농(non-family farm): 경영주(operator)와 관련자들이 농장 자산의 50% 이상을 소유, 통제하지 못함. 기업농, 기관 농장, 협동조합 농장, 연구용 농장 등을 포함
- 기업농(corporate farming): 회사경영 농장.

기업농 찬반 논리

1) 찬성 논리 - 기업, 언론

농업의 경쟁력 강화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투자를 할 대기업의 농업진출 필요

정부의 기업농 도입정책

2009년 5월 농지법 개정 - 농지소유자격 완화

2010년 1월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참여제한
조항 삭제

축산계열화 관련 법 개정으로 계열화 모기업도
재정 지원 받을 수 있게 함

2) 기업농 도입 반대 논리

국내시장 과잉공급으로 중소 영세농가부터
무너지게 됨,

농업생산의 규모화와 집중화로 소농구조 붕
괴

농업의 다원적 기능 약화

2. 기업의 농업생산 진출 실태

- 현재 국내 대기업 중 농업분야에 진출한 대기업은 8개 그룹 25개사, 매출액 4364억원,
- 하림은 양돈업인 농업회사법인 (주)선진한마을을 비롯해 15개 회사를 거느리며, 3218억 47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
- 축산 특히 양돈분야의 진출이 두드러짐.
- 농업회사법인 조직을 활용
- 경종업에서는 아직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이 미약

3. 기업농 도입의 비현실성

1) 자본주의적 기업농 제약과 가족농 존속의 이유

- (1) 생물학적 과정의 위험과 불확실성
- (2) 노동시간과 생산기간의 불일치
- (3) 가족노동의 신축성- 자기 착취 가능
- (4) 고용노동의 과도한 거래비용 - 감독 어려움
- (5) 규모의 경제 작용의 한계 - 일정 규모 넘으면 비효율
- (6) 원료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곤란
- (7) 농지 확보 곤란과 지대 부담

➔ 기업(자본)은 농업생산의 제약과 위험을 회피하면서 농업관련산업을 지배하여 농자재를 독점적 가격으로 팔고 농산물을 싸게 구입하여 이윤 추구(계열화 등)

3. 기업농 도입의 비현실성

2) 과잉공급으로 시장 교란

파프리카 재배면적, 생산량

2006년 335ha 28,145톤 → 2010년 424ha 41,396톤
→ 2015년 707ha 72,950톤

내수 60%, 수출 40% 정도

파프리카 연평균 가격

2012년 31,460원/5kg상자 → 2014년 24,322원
→ 2015년 19,699원

시설 토마토 생산량 및 가격 변동

(단위: ha, kg/10a, 톤)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연평균 도매가격 (원/10kg 상자, 상품 기준)
2011	5,850	6,294	368,224	25,217
2012	6,344	6,822	432,779	26,868
2013	6,054	6,419	388,624	25,498
2014	7,070	7,072	499,960	22,127
2015	6,976	6,551	456,982	19,676

<표 6> 도곡면 파프리카 농가의 판매 단가와 농가수취단가 추이(원/kg)

	판매단가	농가수취단가
2011.8-2012.7	4,836	4,047
2012.8-2013.7	4,136	3,342
2013.8-2014.7	3,818	3,080
2014.8-2015.7	3,434	2,661
2015.8-2016.7	3,221	2,450

자료: 도곡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출하내역서」, 각년도.

<표 7> 도곡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농가의 출하량과 매출액 추이(단위: kg, 천원)

	A농가		B농가		C농가		전체농가	
	출하량	매출액	출하량	매출액	출하량	매출액	출하량	매출액
2012	24,399	557,840	86,922	2,045,344	27,571	678,795	480,139	11,092,070
2013	25,821	561,628	84,244	1,730,706	29,413	615,834	480,025	9,923,374
2014	18,987	370,613	93,045	1,770,180	27,451	529,325	595,698	11,383,785
2015	18,028	278,079	92,209	1,400,603	26,143	429,655	539,989	8,643,332
2016	15,963	254,583	89,258	1,408,790	20,263	348,236	394,941	6,485,752

매년 1월-12월의 수치임. 단 2016년은 7월까지의 수치로 11월 12월분이 포함되지 않음.

자료: 도곡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농가별 생산현황」, 각년도.

원가 이하의 판매단가

- 도곡면 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의 원가분석에 의하면 하절기(4-10월) kg당 4,195원, 동절기(12-3월) kg당 4,375으로 추산.
- 이에 따르면 2013년 이후에는 판매단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파프리카 시장

- 파프리카 시장은 수출이 40%, 내수가 60%정도
- 수출시장은 거의 일본. 네덜란드에서는 유럽 여러 국가로 수출할 수 있지만 한국은 일본에 95%를 수출하고 대만에 5%내외 수출. 중국으로의 수출은 중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아서 개척하기 어렵다.
- 내수시장의 경우도 동기작(7월 파종, 8월 정식, 11월초부터 첫 수확)과 하기작이 겹쳐서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10월 11월과 5-7월) 과잉생산을 면할 수 없고 가격이 하락. 12월-다음해 2월간에는 일조량이 적어 생산 감소, 가격 상승. 현재 생산량은 적정량초과. 과잉시 폐기. 가공기술은 미발전

대기업 축산업 진출의 문제점

- 대량사육은 질병의 위험을 가중 - 항생제 과용
- 외부불경제를 초래하여 생태 위기 심화
- 계열화로 양축농가의 경영비 증가 및 기업 종속화
- 농협의 축산물 판매사업과 경쟁구도 형성

3) 기업농은 경제성이 없다

- P농가는 재배하고 있는 파프리카를 모든 줄마다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몇 줄 가운데 한 줄만 살펴보다 보니 2012년의 1만1천평에 비해 재배면적을 15000평으로 확장한 2013년에 m²당 생산량이 전년도의 13.4kg에서 11.8kg으로 감소했다고 함(P농가 면접, 2016. 10 13).

<표 9> 경남 P농가의 생산실적 추이

작기	총매출(천원)	생산량(kg)	재배면적(m ²)	kg당 단가	m ² 당 생산량	근로자 수
2012	2,257,792	485,575	36355	4,649.73	13.35648	13
2013	2,228,786	547,805	46270	4,068.58	11.83931	18
2014	2,156,248	567,795	46270	3,797.58	12.27134	18
2015	1,763,757	526,710	46270	3,348.63	11.3834	22

대규모 기업농은 경제성 없음

- 자동 제어 기술이 도입되는 유리 온실의 경우에도 작물의 생육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면적에는 한계가 있음. 시설원예 가족농의 적정 규모는 3000-5000평이라고 함. 한국파프리카자조회 가입자격은 그동안 2000평이었는데 현재는 3000평으로 올림.

대규모 기업농은 경제성 없음

- P농가는 그동안 비닐하우스 온실 15000평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해왔는데 2016년 기존의 농장과 십여km 떨어진 곳에 8000평 규모의 측고 6m 첨단 유리온실을 건립. 2만3천평 규모의 대규모 재배농가가 됨.
- 이 농가의 경우 경영주 부부와 장남 부부와 차남 부부 총 6명이 두 군데 농장을 세 사람씩 나누어 경영을 하고 있음 - 대규모 가족농.

유리온실 건설업자가 유리온실을 건립한 경우 있음. 현재는 전문 재배사를 고용하여 경영하고 있지만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놓았기 때문에 스스로 전업농이 되어서 경영할 계획. 현재도 경영 주가 노력의 90%를 유리온실 경영에 투입하고 있음.

농업외부 기업이 자본을 투자하여 유리온실을 지으면 온실을 관리할 사람을 고용. 문제는 고용된 관리자가 자작농처럼 기업 농장을 자기농장처럼 섬세하게 관리하겠느냐 하는 점.

4) 농가 주도의 농업기술 발전

- 기업농 찬성논자들은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해야 ICT를 활용한 농업기술이 발전할 것이라고 함. 그러나 그동안 시설원에 농업기술은 농가 주도로 크게 진전. 최근에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장기 저리 융자 혜택을 보지도 않고 최첨단 유리온실을 건립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음.

4) 농가 주도의 농업기술 발전

- 농민들은 4000평 내지 8000평의 대규모로 축고 6m의 첨단 유리온실을 건립하고 있음. 축고 4m의 유리온실의 평당 30-40kg 수확에 비해 파프리카를 평당 70kg 생산.
- 월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시설원에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생산량을 올리고 생산비를 절감하려 노력.

4) 농가 주도의 농업기술 발전

- 시설원예 농민들은 원격제어 기술도 이전부터 이용해옴. 해외여행을 갈 경우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원격으로 환경을 제어.
- 스마트팜은 노트북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

4. 대기업 농업 진출 규제 방안

1) 대기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

- (1)농업생산 분야에 대해 일정기준 이상의 재벌 및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법률 마련
- 축산법 개정안 “제27조(축산업의 참여 제한)
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상, 연매출액 2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미국에서도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아이오와, 미네소타, 위스콘신, 메브라스카, 미주리, 캔자스 등 9개 주에는 가족농 보호를 위해 기업농(corporate farming)을 금지 내지 제한하는 반기업농법(Corporate Farming Act)을 채택하고 있음.

(2)대기업의 진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

- 박민수 전 의원 발의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제39조의2(대기업의 농어업 영향평가서 등 제출)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어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농어업 영향평가서 및 농어업인 상생협력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농업회사법인에서 비농업인의 투자 지분 제한 강화

- 대기업들은 이미 농업회사법인을 활용하여 농업생산과 축산업에 진출
- 농축산업 생산분야에 기업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는 경영주의 자격을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비농민의 출자지분을 회사를 지배할 수 없는 50% 이하로 제한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계열화사업에 따른 대기업의 농가 지배를 규제하는 방안

-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해도 사료업체나 가공업체가 계열화를 통해 농가를 지배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 표준거래약관을 정하고 이를 이행했는지 정부기관과 농민단체 등을 통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불이행시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

4) 사료생산과 농축산물 가공, 유통 에서 협동조합 강화

- 사료생산과 농축산물 가공, 유통 분야에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과 대결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원예 및 축산농가의 협동조합 조직력과 사업이 강화되어야 함

감사합니다